

2017년 서울시 국어 총평 - 류승범

1. 시험다운 시험이었습니다.

국어 시험다운 시험이었습니다. 분야별 균형도 잘 맞고, 문제의 난이도도 적당하여 공부를 한 학생은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다운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야 할 것들이 나온 시험이어서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2. 문학을 폭넓게 공부하자.

이번 서울시 국어 시험에 문학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설과 시 각각 출제되어 균형이 잘 맞았습니다. 소설은 서술자에 대해 물었고, 시는 전체적인 감상을 물었습니다. 모두 문학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학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자의 독음을 공부하자

한자성어가 주로 나오던 문제에 한자의 독음까지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출 문제에 사용된 단어와 그 외 필수 단어의 독음은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책형 해설

1. ①

반의어에는 중간 단계가 있는 반의어와 중간 단계가 없는 반의어, 상대적인 반의어로 나눌 수 있다. ‘살다’와 ‘죽다’는 중간 단계가 없는 반의어이고, 나머지는 중간 단계가 있는 반의어에 속한다.

2. ①

<보기>에 제시된 단어는 모두 파생어이다. ‘건어물’은 접두사 ‘건’이 붙어 ‘마른’ 또는 ‘말린’의 의미를 더해주는 파생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합성어이다.

3. ④

순경음 ‘ங’은 ‘ㄴ’과 ‘ㅇ’을 연달아 적은 것(니서쓰기)으로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①

예문에 나타난 오류는 어떤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중의 감정, 군중심리, 열광 등에 호소하거나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오류인 대중(여론, 군중)에의 호소이다. 이와 같은 것은 ①이다. 예1) 이 소설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벌써 30만부나 팔렸으니까.

② 무지에의 호소 : 어떤 주장이 반증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결론이 증명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

예1)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거짓임이 분명하다. 어떤 수학자도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예2) 지옥은 존재한다. 아무도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 논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오류

예1) 이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화장품인 줄 아니? 그 유명한 영화배우 ○○○씨도 쓰는 화장품이래.

④ 정황에의 호소 : 상대방의 특수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위치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그의 주장을 비판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

예1) 애! 공부 좀 해라. 코앞에 시험이 닥쳤는데도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을 거냐.

5. ④

서술자는 다이쇼에게 도움을 받아 장사를 할 계획이고, 내지인(일본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의식주를 일본인처럼 하려는 생각을 하는 인물로 비판적인 인물이다.

① 서술자는 내지인을 맹목적으로 좋아한다.

② ‘나’가 나오는 것은 1인칭이다.

③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6. ②

‘학여울’은 ‘ㄴ’첨가되고 비음화가 되어 [항녀울]로 발음한다.

① 선릉[설릉] - Seolleung

③ 낙동강[낙똥강]- Nakdonggang(된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집현전[지편전]- Jiphyenjeon (체언은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7. ③

‘뒷+풀이’로 이루어진 합성이고, ‘맥주(麥酒)+집’으로 이루어진 합성이다. 이때 뒷말이 된소리(맥주찹)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 표기한다.

①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의미일 때에는 ‘분다’로 적는다.

② 준말로 만들 때 앞말이 안울림소리면 ‘하’를 지워 적는다. 예)넉넉하지→넉넉지.

만약 울림소리가 오면 ‘하’와 뒤에 오는 자음을 축약하여 적는다. 예)상상하지→상상치

④ 자격을 나타낼 때에는 ‘-서’로 적고, 도구일 때 ‘-써’로 적는다.

8.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② 주격조사 ‘가’는 16세기부터 사용되었다.

③ ‘.’는 16세기부터 변하기 시작해 18세기에 사라지게 되었다.

④ 순경음 ‘ㄹ’은 15세기까지 쓰이다가 모음 앞에서 ‘ㄴ, ㄷ’로 바뀌었다.

9. ③

㉠, ㉡, ㉢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다.

㉠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눅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날로 위태로우니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 ㉢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찌 죽음이 두려워 행복을 하겠는가. ㉤ 선비 정신에서 그 강인성을 찾을 수 있다.

10. ③

이 시에서 ‘별’은 시적화자가 그리워하는 친구들과 어머니를 떠올리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① 청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현실적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실적 욕망과는 관계가 없다.

11. ②

굼적대다 :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12. ②

① 토의(討議)

③ 선택(選擇)

④ 준거(準據)

13. ④

‘한여름[한너름]’은 첨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치(교체)이다.

14. ②

본문에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고 했으므로 ②가 알맞다.

15. ④

본문에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에서 평소 산을 바라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르게 바라본 행동들에서 새로움을 찾고 있다.

①, ③ 이 글과 관계가 없다.

② 본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지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16. ①

가물(가문)에 도랑 친들 고기가 잡힐 리 없고, 까마귀가 미역(묵욕)을 감은들 깨끗해질 리가 없다. 따라서 ‘헛수고’와 관련 깊다.

17. ②

① 도야(陶冶)

③ 쇄도(殺到)

④ 골몰(汨沒)

18. ③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동안’은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① ‘창밖’은 합성어이다.

② ‘우단천’은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④ ‘일밖에 없다’에서 ‘밖에’는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 쓴다.

19. ③

㉤만 주어가 ‘우리’이고, 나머지는 모두 ‘환자’이다.

20. ②

단순한 문장 배열 문제가 아니라 시사(詩史) 배열 문제이다.

㉠ 한용운은 1920년대 → ㉡ 모더니즘과 김기림은 1930년대 → ㉢ 한국전쟁이니까 1950년대 → ㉣ 신경림, 고은, 김지하는 1960~70년대이다.